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영어토론 활동을 통한 초등학생의
의사소통능력신장 방안



2011년 8월 26일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장 현 주

학 위 논 문

영어토론 활동을 통한 초등학생의
의사소통능력신장 방안



2011년 8월 26일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장현주

장현주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8월 26일

주심	문학박사	권영희 (인)
위원	어학박사	John Stonham (인)
위원	교육학박사	박매란 (인)

목 차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3
1.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2.1 토론의 개념	4
2.2 토론학습의 개념과 효과	5
2.3 소집단 토론학습의 중요성	6
2.4 찬반토론의 기본 용어 및 형식	7
2.5 영어교육에서의 소집단 토론교육	8
2.6 선행연구 고찰	9
III. 연구 방법	12
3.1 연구 대상 및 기간	12
3.1.1 연구대상자 선정 및 기간	12
3.1.2 연구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12
3.2 연구 방법 및 절차	15
3.2.1 연구 방법	15
3.2.2 연구 기간 및 절차	18
3.3 연구 도구	24

3.3.1 실험 전·후 영어듣기 평가지	24
3.3.2 토론 동영상 촬영	24
3.3.3 쓰기 학습지	25
3.3.4 정의적 영역에 대한 설문지	25
3.3.5 심층 면담자료	26
3.3.6 수업교재	26
IV. 결과 분석 및 토의	27
4.1 의사소통 능력평가 결과 분석	27
4.1.1 토론 활동 전·후 듣기평가 결과분석	27
4.1.2 토론 활동 전·후 쓰기 및 말하기 결과 분석	28
4.2 정의적 영역의 변화에 대한 분석	30
4.2.1 영어토론 수업에 관한 정의적인 변화	31
4.2.2 영어토론 수업의 내용에 관한 생각의 변화	39
4.3 영어토론 수업에 관한 학생 심층면담 분석	51
4.3.1 토론에 대한 아동의 생각	51
4.3.2 토론 수업의 어려운 점에 대한 생각	52
4.3.3 토론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	54
4.3.4 토론 수업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	55
4.4 영어토론 수업에서 원어민 협동교사의 의견분석	57
V. 결론 및 제언	59
5.1 결론	59
5.2 제언	61

참고 문헌	63
부록	66



표 목차

<표 1> 찬반토론 기본 용어	8
<표 2> 학습 이전의 듣기 결과	13
<표 3> 토론 활동에 대한 흥미도	14
<표 4> 영어토론 활동의 경험 유무	14
<표 5> 2대2 형식의 토론절차	16
<표 6> 토론 활동을 위한 4단계 토론 전략	17
<표 7> 영어 토론을 위한 토론학습 용어	17
<표 8> 기간별 토론 수업의 추진내용 및 방법	18
<표 9> 반박을 위한 4단 논법	23
<표 10> 영어 듣기평가의 전·후 변화	28
<표 11> 영어 쓰기 및 말하기 활동에서의 전·후 문장수 변화	29
<표 12> 영어 쓰기 및 말하기 활동에서의 전·후 단어수 변화	30
<표 13> 듣기 향상 기대치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31
<표 14> 말하기 향상 기대치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33
<표 15> 읽기 향상 기대치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34
<표 16> 쓰기 향상 기대치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36
<표 17> 흥미도 향상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37
<표 18> 의욕변화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38
<표 19> 용어 이해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40
<표 20> 듣기 참여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41
<표 21> 의견 말하기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43
<표 22> 이유 말하기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44
<표 23> 증거 말하기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46

<표 24> 반박하기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48
<표 25> 영어 사용량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50



그림 목차

<그림 1> 듣기 향상 기대치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32
<그림 2> 말하기 향상 기대치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33
<그림 3> 읽기 향상 기대치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35
<그림 4> 쓰기 향상 기대치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36
<그림 5> 흥미도 향상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38
<그림 6> 의욕변화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39
<그림 7> 토론용어 이해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41
<그림 8> 듣기 참여도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42
<그림 9> 의견 말하기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44
<그림 10> 이유 말하기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45
<그림 11> 증거 말하기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47
<그림 12> 반박하기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49
<그림 13> 영어 사용량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50

A Study on Improving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ough English Debates

Hyun Ju Ja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has investigated improving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e through teaching debate vocabulary, debating method by steps, real debate training subjects, and small debate contest for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is study, it is mainly concerned with debate training in the elementary school 6th grade students. The listening test, the pre and post survey, and an interview have been conducted to find out the most appropriate means for improving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experimental group was constructed with 30 students in the period of 8 months, and the results of the debates completed by analyzing video-tape, comparing pre and post survey, and the structured interview.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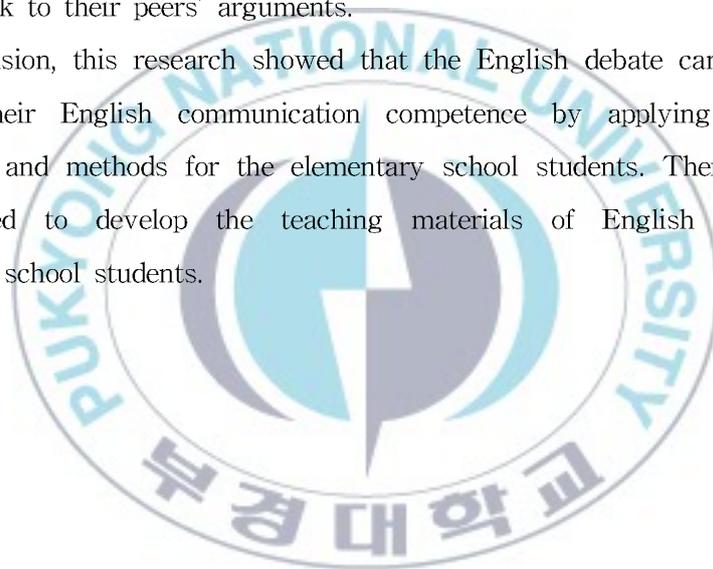
First, we researched on the listening, writing, and speaking to analyze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e. In the listening, the debate training has brought positive effect for the listening ability. In the writing and speaking, we analyzed the number of sentences and vocabulary used during the time students were debating. It showed that the results are significantly increased.

Second, we analyzed the changes of the students' expectation for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e by steps. The English debates training brought

much improvement in the fields of the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whereas slight increasing on speaking. Therefore it has positively affected on improving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e.

Third, in the analysis of the students' interview, the English debates contributed to considerable improving in students' self-confidence. And also in the opinion of the native co-teacher, the English debates have contributed to the most successful development related to the students' academic vocabulary, and increased their confidence by using the prepared speeches and providing the feedback to their peers' argument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 English debate can be used to improve their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e by applying the proper procedures and methods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re should be also needed to develop the teaching materials of English debate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초등영어교육과정의 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의사소통능력이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사를 명확히 받아들여 서로의 생각을 언어를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각이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각을 좁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해 직접적인 상황이 아닌 의사소통중심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과 과제중심 학습법(task-based learning)을 중심으로 한 간접적인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학습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Brown, 2000).

이러한 간접적인 접근법은 역할놀이(role-play)나 정보차 활동(information gap), 문제해결 활동(problem solving tasks) 등을 주로 하면서 학습자들에게 언어의 유창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많은 상호작용과 발화를 이끌어내지만 주어진 연습 내용의 구문을 반복할 뿐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Dörnyei & Thurrell, 1994).

하지만 배두본(2002)은 의사소통 능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법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제한적 구두 논설(verbal essay)을 그 하나로

들고 있다. 이는 특정한 일반 논제에 대해서 3분 정도 말을 하거나 녹음을 하게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도 하나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중을 향해 혼자 말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상호 의사소통으로 보기는 힘들다.

Pica(1987)는 의사소통에서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 언어란 주어진 규칙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라는 상황을 통해 내면화되어지는 것이므로 학습자들 간에 동등한 참여기회를 가져 올 수 있는 정보교환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런 동등한 의사소통의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토론으로 보았으며, 토론은 의사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언어를 자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에 가장 알맞은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언어생활은 대부분 대중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주로 작은 수의 소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집단 토론 활동 방법을 언어교육에 많이 이용해 왔었다. 외국어교육에서도 소집단 활동이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나 듣기에서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wn, 2000).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본다면 교실 내에서 현재까지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으로 주로 활용되어 온 과제중심학습법의 단순한 암기식 학습보다는 소집단 토론이라는 학습을 통해 학습자 간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이로서 효율적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토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은 있으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기초 단계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토론에 대한 방법은 현재 미미한 상태에 있고 자료 또한 매우 부족한 수준이어서 초등학생의 수준에 알맞은 토론 방법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EFL 상황에 있는 한국 초등학생의 수준에 알맞은 토론 방법을 알아보고, 적절한 방법의 적용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생들이 토론에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토론에 쓰이는 용어부터 토론에 필요한 요소의 세부 연습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토론 방법을 익히고, 점차 토론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영어토론 학습 전·후를 비교 연구하였다.

첫째, 영어토론 활동은 학습자들의 듣기와 쓰기 및 말하기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영어토론 활동은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정의적인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몰입영어교육을 통해 1년 동안 과학 과목을 주당 40분씩 영어로 학습하였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초등학교 학생들 보다는 알고 있는 어휘의 폭이 넓고 영어로 말하기에 좀 더 노출이 되어있어서 효과적인 영어토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해석이 다른 일반 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활동이 영어의 의사소통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토론교육의 특징과 중요성을 알아보고 본 연구에서 다룰 토론의 개념을 정확히 밝히고, 영어교육에서의 토론교육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방향과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1 토론의 개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토론이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함’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토론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의 한 형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Dillion(1996)은 토론을 집단적 상호 작용의 한 형태로 보고 구성원들이 함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 다른 관점들을 교환, 검토함으로써 논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평가나 판단, 의사결정, 행동 등을 촉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국어교육학 사전(1999)에서는 토론의 개념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토론이란 어떤 논제에 대립되는 입장으로 나뉘어 각각 논리적 근거를 발표하고 상대방의 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토론에서 다루어지는 논제는 문제가 상대방과 대립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립되는 두 팀이 논리적인 주장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상대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증거를 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단순히 어떤 의견을 주고받는 정도의 논의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Richard와 Rickett(1995)는 서로 대립하는 논제를 풀어가는 가는 상황을 하나의 찬반토론이라는 형식으로 보고, 이러한 찬반토론은 서로 대립하는 두 집단이 논리적 절차와 순서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상대방 집단을 반박하는 것으로써 각 집단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두 집단은 이기기 위해 자신들의 주장에 적절한 이유와 증거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청중들에게 설득력을 갖게 하고 토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교과서에 소개되는 토론의 개념은 ‘토론이란 어떤 의견이나 제안, 또는 서로 생각이 다른 문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각각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며 자기의 주장이 옳음을 밝혀 나가는 형식으로 토론하는 양쪽은 생각과 입장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야 하며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이 받아들일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의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대중 앞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이나 제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의 찬반토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2.2 토론학습의 개념과 효과

토론학습은 ‘하나의 문제에 관련되는 의견이나 제안에 대하여 찬반의 입장이 분명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는 방식, 즉 어떤 제안이나 의견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뚜렷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논의의 형태(유탉열, 2002)'를 학습에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문제에 관련되는 의견이나 제안에 대하여 찬성자와 반대자의 입장에서 각각 논거를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주장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수 있도록 자기의 주장을 펴 나가는 것이 토론학습 방법이다.

Brookfield와 Preskill(1999)은 토론수업의 효과를 15가지로 제시하면서 토론 학습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으며, Dillion(1994)에 의하면 토론 수업은 실제로 고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수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토론 학습은 참여하는 동료들 다양한 정보와 자료의 원천으로 인식하게 되며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존경심과 문제를 혼자 힘으로 아니라 집단의 협동의 의해 해결해 가는 과정을 학습하는 기초가 된다. 또한 토론학습의 과정은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서로 공유하면서 적용,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회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길러 주는 역할을 한다.

2.3 소집단 토론학습의 중요성

Ur(1999)은 토론 시 소집단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많은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는 학생을 소집단으로 만들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집단이 되면 말할 순서를 더 많이 배당받게 되어 전체집단 활동에서보다 더 많은 참여기회를 갖게 된다. 둘째, 소집단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 집단에서는 공간이 넓어 상대방의 말을 분명하게 잘 알아듣기가 힘

들지만 소집단에서는 더 자세히 들을 수가 있다. 셋째, 말하기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다. 따라서 수줍어하는 학생들은 전체학생들 앞에서 말할 때 상당한 부담감을 갖지만 소집단인 경우에는 부담감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서로 가까운 곳에서 듣고 말하게 되므로 분명하게 듣고 말할 수 있게 되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서로에게서 배우게 되고 서로 도와주어 학습을 촉진 한다고 한다.

Brilhart와 Galanes(1989)에 의하면 소집단 토론은 참여자들이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더 나은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의사소통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이 어떤 단체나 사회 전체에 대해 공헌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토론이 집단이라는 개념에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토론학습은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인 면에서 행동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2.4 찬반토론의 기본 용어 및 형식

소집단으로 나누어 찬반토론을 할 때에는 다양한 형식이 있으며, 인원과 상황, 시간에 맞게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 할 수 있다.

Rybold(2006)는 가장 널리 알려진 찬반토론의 형식을 정책토론(policy debate), 링컨-더글러스 토론(Lincoln-Douglas debate), 의회식 토론(parliamentary debate: national parliamentary debate association), 세계식 또는 유럽/영국 의회식 토론(worlds style or European/British parliament), 공공 포럼(public forum), 칼 포퍼 토론(Karl Popper debate) 등의 6가지의 형식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입론, 질문, 반박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러한 모든 찬반토론에는 주어진 논제(resolution)에 대해 각각 긍정

팀(affirmative team), 부정 팀(negative team)이 있어야 하며, 논제는 주로 사회,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찬반의 의견이 대립되는 논쟁적인 문제가 적절하다. 찬성 팀은 주어진 논제에 대해 찬성하고 방어하는 입장을 취하며, 반대 팀은 반대로 주어진 논제에 대해 반론을 펼치고 공격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해진 형식에 따라 찬반 토론이 종료되면 정해진 심판자(judge) 또는 청중들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어 승자를 가리게 된다. 다음 <표 1>에는 찬반토론을 위한 Krieger(2005)의 기본용어와 용어에 대한 각각의 정의를 나타내었다.

<표 1> 찬반토론 기본 용어

기 본 용 어	정 의
논제(resolution)	긍정 팀과 부정 팀이 벌이는 토론의 주제
긍정팀(affirmative team)	논제에 찬성하는 팀
부정팀(negative team)	논제에 부정하는 팀
반박(rebuttal)	상대 팀의 주장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
토론(debate)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두 팀이 연설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
심판(judges)	토론의 승자를 결정하는 사람

2.5 영어교육에서의 소집단 토론교육

언어교육에 있어서 소집단 활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Brown(2001)은 소집단 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교사는 수업의 내용을 지도하기보다 학생들을 통제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왔다. 하지만 소집단 활동을 통하면 교사가 더 이상 학생들

을 통제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다.

둘째, ESL 학생들은 여러 가지 문화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는데 교수 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수업을 힘들게 생각 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소집단 활동을 하게 되면 가끔씩 잠깐 학생들의 모국어를 사용하게 하여 학습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셋째, 전체학생을 상대로 교사가 수업을 하다보면 학생들의 실수를 일일이 보강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소집단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실수할 수 있는 내용을 교정할 수가 있다.

넷째, 교사가 전체 집단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다.

다섯째, 어떤 학생들은 혼자 학습하기를 더 좋아한다. 이런 학생들에게 교사는 언어란 혼자서 독립적으로 규칙과 단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대면(face-to-face)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들과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할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됨을 알게 하고 소집단활동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본 연구는 찬반토론의 개념을 가지고 단계나 인원수, 시간을 조정하여 초등학교 학생의 수준에 알맞게 재구성 하였다.

2.6 선행연구 고찰

영어토론활동을 통한 영어사용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Nunn(1996)은 대학수업에서의 토론 양상에 다각적인 관찰과 설문에서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토론 수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학습이 토론 수업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토론을 진행 방법과 토론 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학생들이 토론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Fukuda(2003)는 찬반 토론 수업에서의 학습자들의 정의적인 변화를 연구하여 찬반토론 수업을 실시한 결과, 처음에는 영어 토론 활동에 대해 상당히 두려워하던 학생들이 찬반 토론 수업 후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두려움이 줄었다는 학생의 수가 많아졌으며, 자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조효진(2003)은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영어교육 전공 여학생 33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대학 영어 수업에서 토론 전략 훈련이 학습자들의 토론 능력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오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실험 집단의 학습자들은 토론 전략 훈련이 이루어진 이후, 토론 전략의 사용 비율이 통제집단의 학습자들보다 높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은 통제 집단의 학습자들에 비해 토론 전략 훈련의 효과 및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었으며, 토론 전략훈련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었다고 하였다.

김상희(2010)는 찬반토론의 전략 훈련이 한국대학들의 영어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토론 전략의 사용으로 인해 흥미, 자신감, 태도 등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토론을 통한 직접적인 말하기 활동을 함으로써 좀 더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권경숙(2006)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소집단 토론 활동을 통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 쓰기 협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 소집단 토론이 활발히 일어난 것으로 보고 하였다. 그리고 소집단 토론 활동이 영어 말하기·쓰기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김대영(1998)은 그룹 토론 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영어 학습 지도 방안에서 고등학생을 3~4명으로 소집단 구성하고, 소집단 토론 과정을 관찰 연구하여 이해 능력이나 언어지식 습득 능력이 소집단 토론 학습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습 능력 향상의 가능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기간

3.1.1 연구 대상자 선정 및 기간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B초등학교에서 2010년 6학년 1개반 3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2010년 4월 6일부터 2010년 12월 14일까지 주당 1회 20분의 수업을 통해 약 30회의 영어 토론수업을 진행하였다.

영어토론 활동이 초등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위해 듣기, 쓰기 및 말하기를 실시하여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정의적인 영역의 변화 상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층면담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인 정의적 변화를 알아보았다.

3.1.2 연구대상자에 대한 기초 조사

연구 대상자에 대한 기초 조사로 먼저 학생들의 듣기 능력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토론 용어를 지도한 후 실제 토론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토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사전 듣기 평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 상대방의 의견을 잘 알아듣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듣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
고자 사전 듣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듣기 문항은 모두 20문항으로 부산
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생활영어급수인증제 8급 A형을 이용하여 그
결과는 <표 2>에 나타내고 있다.

<표 2> 학습 이전의 듣기 결과

	100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평균
	학생수	백분율	학생수	백분율	학생수	백분율	학생수	백분율	
연 구 반	12	40.0	10	33.3	5	16.7	3	10.0	91.83

사전 듣기 평가의 결과 90점 이상인 아동의 전체수는 22명으로 73.3%
의 아동이 듣기 능력이 매우 우수 하였으며, 80점미만 아동의 수는 3명
으로 듣기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아동의 수는 10%로 나타났다.

2) 영어 토론 활동에 대한 경험의 유무

소집단 영어토론 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로 학생들이 토론이라는 것을
좋아하는지, 또한 영어로 토론에 대한 사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3> 및 <표 4>와 같다.

<표 3> 토론 활동에 대한 흥미도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학생수	백분율	학생수	백분율	학생수	백분율	학생수	백분율	학생수	백분율
연구반	7	23.3	5	16.7	7	23.3	8	26.7	3	10.0

흥미도에 있어서는 우리말이나 영어로든 토론 활동을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40%의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36.7%의 학생들은 ‘좋아한다’고 답변을 하였다. <표 3>에서 나타내듯이 토론을 좋아하는 학생의 숫자와 좋아하지 않는 학생의 숫자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4> 영어토론 활동의 경험 유무

	전혀 없다		1-2회		3-5회		5-10회		10회 이상	
	학생수	백분율	학생수	백분율	학생수	백분율	학생수	백분율	학생수	백분율
연구반	20	66.7	1	3.3	3	10.0	5	16.7	1	3.3

<표 4>에서 나타내듯이 영어토론 활동 경험 유무에 있어서는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66.7% 이며, ‘1~5회’라고 응답한 학생이 13.3%, ‘5~10회’ 라고 응답한 학생이 16.7%, ‘10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3%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토론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이 약 66%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3.2 연구 방법 및 절차

3.2.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Debate for juniors(김종남, 2009a & 2009b)를 바탕으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알맞다고 생각되는 간단한 토론 방법을 실시하였다. 토론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1994년에 만들어진 칼 포퍼 토론의 방식을 재구성하여 본 연구자와 원어민 교사는 한국인 초등학생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여겨지는 토론방식을 선택하였으며, 3명이 한 팀으로 6명이 토론을 하는 3대3형식(Three on Three Debate Format)의 칼 포퍼 토론의 방식을 개선하여 초등학생 수준으로 2명이 한 팀을 이루는 2대2 형식(Two on Two Debate Format)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칼 포퍼 토론의 방식이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되어 비판적사고, 자기표현,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의 자세를 길러주는데 유용한 방식이었지만, 본 연구에 있어서, EFL 상황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상대팀의 3명의 의견을 다 기억하면서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수정 보완하여 다음의 <표 5>와 같이 2대2 형식을 고안 하여 적용하였다.

<표 5> 2대2 형식의 토론 절차

순서	토론절차	발언 시간	준비 시간
1	긍정 측 토론자의 입론 (affirmative constructive)	2분	
2	부정 측 토론자의 입론 (negative constructive)	2분	
3	각 팀의 토론자의 교차조사 (cross-examination)	5분	2분
4	긍정 측 토론자의 반박 (affirmative rebuttal)	2분	
5	부정 측 토론자의 반박 (negative rebuttal)	2분	

또한 2대2 형식으로 토론 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난 후, 학습자들에게 이 토론의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원어민 교사와 협의를 하였다. 협의의 결과 학습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토론의 용어에 대한 이해, 토론의 절차, 정보의 명확한 전달, 다른 사람의 말 듣고 반박하기, 명확하게 정리하거나 다시 바꾸어 말하기, 결론 정리하기의 내용이었다. 따라서 원어민 교사와 함께 본 연구자는 수업에 사용될 토론활동의 4단계로 나누어서 기간별로 토론 전략을 <표 6>과 같이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였다.

<표 6> 토론 활동을 위한 4단계 토론 전략

단 계	전 략
1 단계	자신의 의견 말하기
2 단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유 말하기
3 단계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 대기
4 단계	반박스텝 이용하여 반박하기

다음의 <표 7>은 영어 토론을 위한 토론학습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4회에 걸쳐 지도를 하였다.

<표 7> 영어 토론을 위한 토론학습 용어

용 어	정 의
opinion	논제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견
reason	자신의 의견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
supporting idea	의견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실생활의 예나 구체적인 사건
evidence	이유에 대한 사실적인 증거
resolution	토론에서 논제를 의미함
argument	찬성과 반대팀의 논쟁
affirmative team	논제에 찬성하는 팀
negative team	논제에 반대하는 팀
rebuttal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3.2.2 연구 기간 및 절차

5단계 토론 전략을 바탕으로 원어민교사와 함께 주당 1회 20분씩 30회의 토론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기간별 토론 수업이 이루어진 절차는 <표 8>과 같다

<표 8> 기간별 토론 수업의 추진내용 및 방법

기 간	단계	추진내용 및 방법
4월6일~4월27일 (4회 80분)	1단계	토론학습의 용어 및 방법 지도 간단히 의견 말하기
4월20일		1차 설문지 조사
5월4일~5월25일 (4회 80분)	2단계	의견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이유 말하기 논제: Dogs make the best pets.
5월 6일(1회 40분)		토론관련 원어민과 협동 공개 수업
6월1일~7월13일 (7회 140분)		의견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이유 말하기 논제: All children like pizza very much.
9월9일~10월21일 (7회 140분)	3단계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 대기 논제: Large families are better than small families.
10월28일(1회20분)		1차 동영상 촬영
11월4일~12월2일 (4회 80분)	4단계	반박스텝의 이용해서 반박하기 논제: Large families are better than small families.
11월 25일 (1회 20분)		2차 동영상 촬영
12월 9일 (1회40분)	5단계	미니 토론대회 하기 논제: Boys should not cry. 2차 설문조사하기

<1단계> 토론 학습의 용어 및 방법지도

원어민 교사는 Debate for juniors(김종남, 2009a & 2009b)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유인물을 준비하여 학습자들에게 토론 방법 및 그에 따른 여러 표현들을 가르치고, 연구자는 학습자들이 원어민 교사와의 수업에서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충지도 하였다. 토론 학습의 용어 및 방법 지도를 4회 80분 수업을 진행하였다. 첫 시간은 하나의 간단한 논제를 가지고 그 논제와 관련된 글을 함께 읽는다.

예를 들면 ‘Dogs make the best pets.’ 라는 제목을 칠판에 쓴다. 그리고는 애완동물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글을 나눠준다.

Keeping pets is a good thing. Pets are sweet and cute. They can make people happy just by being together. They can keep you company, too. These days,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own pets and pets are treated like family members. Among various kinds of pets, dogs make the most common pets. They are tame animals and very easy to care for. Also, they are very faithful and loyal to their owners. Some other kinds of pets are hamsters, cats, fish, snakes, birds, turtles, iguanas, etc(Debate for juniors, 김종남, 2009a).

학생들에게 칠판에 쓰여진 제목이 토론의 논제 즉 ‘resolution’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듣는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I agree with this resolution ‘Dogs make the best pet.’ 혹은 I disagree with the resolution, dogs don’t make the best pets.

위와 같이 단순히 논제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견제시라고 한다. 각 개인의 의견제시가 끝나고 나면 위에 제시된 것 같은 짧은 글을 참고로 하여 자신들이 제시한 의견에 알맞은 간단한 이유(reason)를 간단히 밝힌다.

I agree with this resolution, dogs make the best pet. Because dogs play with people well.

위와 같이 한 두 문장 정도의 이유를 밝힌 후 그 이유 뒷받침할 만한 생각(supporting idea) 한두 가지를 쓴다. 이러한 뒷받침할 만한 생각이 증거(evidence)가 되는 것이다. 증거는 제시된 짧은 글에서 찾아도 되고 인터넷 등에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와도 되며, 자신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가져와도 된다. 보통 학생들은 'For example~' 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자신들의 경험을 보통 이야기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며,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I agree with dogs make the best pet. Because dogs play with people well. For example when I return to my house, my dog kisses me and express his pleasure. It make me happy.

이렇게 자신의 경험까지 말을 하고 나면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왜 상대방은 논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한 후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예로 보여 주면서 토론 용어를 지도하게 된다. 그리고 토론 용어 지도가

끝나면 몇 가지 논제를 내어서 간단히 의견을 말하는 정도의 연습을 한다. 이렇게 하여 1단계의 토론 훈련 4회를 마친다.

<2단계> 의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유 말하기

2단계에서는 교재로 선택된 책에서 첫 논제를 가지고 온다. 1차시에는 논제에 대해 간단히 의견제시를 한다. 예를 들면 의견 제시의 시작은 보통 'I agree with dogs make the best pets' 또는 'I disagree with dogs make the best pets'로 한다. 그리고 2차시 이후부터 자기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이유를 찾아 말한다. 이 때 학생들 스스로 이유를 말하기에는 영어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와 비슷한 논제에 대한 이유를 말해 놓은 부분을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찾아 읽어 보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이유를 조리 있게 기록해서 말하도록 한다. 1단계에서 예로 들었던 글도 좋은 자료가 된다.

이와 같이 첫 번째 논제로 2차시의 수업이 끝나면 논제를 'All children like pizza very well'로 바꾸어서 의견 말하기와 의견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이유 말하기를 학습한다. 연구대상 학생들이 말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agree with all children like pizza very well. Because pizza is a healthy food. It has many vegetables(S5, 2010.06.18.).

I disagree with all children like pizza very well. Because It has many calories and greasy and make children get fat(S10, 2010.06.18.).

<3단계>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 대기

3단계에서는 'Large families are better than small families'라는 논제

로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다. 그런 다음 학생들이 제시한 이유가 설득력이 있도록 증거를 제시한다. 좋은 증거는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 좋으나 그런 증거를 준비하기에는 학생들의 영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는 우선 학생들 자신의 경험에서 찾도록 하였다. 자신들의 경험에서 찾기 힘든 경우는 부모님의 이야기, 신문 속의 이야기, 인터넷에 있는 사실들을 토대로 증거를 제시하도록 훈련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I agree with large families are better than small families. Because we can get a lot of pocket money. For example, when Chuseok we can get lots of money form my relatives(S12, 2010.10.01.).

<4단계> 반박스텝을 이용해서 반박하기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증거까지 제시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학생의 의견을 듣게 되고 그에 따른 이유와 증거들을 듣는다. 만약 학생들이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을 때는 상대의 의견에 반박을 하게 된다. 이 과정 또한 학생들에게는 매우 힘든 과정이어서 Meany와 Shuster(2002)이 중학생의 공공토론 프로그램에서 이용한 4단 논법(Four-Step Method)를 이용하여 반박의 과정을 다음의 <표 9>와 같이 4개의 작은 스텝으로 나누어 지도 하였다.

<표 9> 반박을 위한 4단 논법

step	지도 내용
1	“They say...” 라고 시작 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견을 간단히 언급해 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의견을 말할 때 note-taking을 해 두는 것이 좋다.
2	“But I disagree with...”라고 말하면서 상대방과 반대되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3	“Because...” 라고 시작하면서 상대방과 반대되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가면서 말한다.
4	“Therefore...”라고 시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간단하면서 정확하게 제시하는 결론을 맺는다.

4단 논법 적용에 관한 학생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He says small families are better than large families. Because it is not crowded and no fighting. But I disagree with his opinion. Even though it is small families, there are many fights. Because they have to see each other more often than large families. For example I have a brother and we always fight. Therefore large families are better than small families(S12, 2010.11.12.).

<5단계> 미니 토론 대회를 통해 상대방 설득하기

학생들은 2대2 토론 형식에 맞추어 찬반 양 팀으로 나누고 의제에 관해 토론을 하고, 지켜보고 있던 다른 학생들이 승패를 결정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연구기간 동안 4개의 논제를 다루게 되고, 두 번째 논제에 대한 토론의 마지막 20분은 촬영을 하여 연구의 중간 변화과정을 살피며, 원어민교사와 협동수업을 통한 공개수업을 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논제를 다루는 마지막 20분은 최종 변화 과정을 살피기 위한 비디오 촬영을 한다.

3.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실험 전·후 듣기 평가지, 쓰기 학습지, 토론 동영상 촬영, 실험 전·후 정의적 영역에 대한 설문지, 심층 면담 질문지, 수업교재로 구성되어 있다.

3.3.1 실험 전·후 영어 듣기 평가지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토론을 하면서 학생들의 수준별 영어 듣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듣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듣기 평가는 부산광역시에서 개발한 영어급수활용인증제 듣기 평가지 A형 8급을 실험 전·후 똑 같이 실시하여 듣기 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토론은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론에서 승리를 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반박을 해야 하므로 학습을 하다보면 듣기 능력도 향상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실험 전·후 듣기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3.3.2 토론 동영상 촬영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토론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맞게 찬반 양 팀으로 나뉘어 4명이 2대2 토론형식으로 촬영을 하였다.

3.3.3 쓰기 학습지

쓰기 학습지는 4가지 논제가 하나씩 끝날 때 마다 학습자의 의견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여 4가지 논제에 대한 의견 기록이 다 끝나면 그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이렇게 4번의 쓰기 기록을 하도록 한 것은 자신이 쓴 것을 보고 말하도록 하면 쓰기와 말하기의 변화 과정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실시하였다. 쓰기 평가를 하는 목적은 토론을 하다보면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적어서 말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의 학습이 의사소통능력 향상, 특히 쓰기와 말하기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실시하게 되었다(부록 1 참조).

3.3.4 정의적 영역에 대한 설문지

의사소통능력에 변화에 대한 정의적인 반응을 조사하고자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에 맞게 제작되어 4회 수업 후 토론에 대한 용어 및 방법을 학습하고 간단히 의견 말하기 수업을 한 후 학습자들의 영어 토론 수업에 대한 기본생각, 토론 수업내용에 대한 생각, 토론 수업이후의 발전방향을 알아보하고자 1차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18회 수업을 한 후 같은 설문지로 다시 학습자의 변화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부록 2 참조).

설문지의 문항 수는 총 13문항으로 학습자들의 영어 토론 수업에 대한 기본 생각은 6문항(1~6번), 토론 수업내용에 대한 생각은 7문항(7~13)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에 대한 척도는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아니다'부터 시작하여 '매우 그렇다'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각각 1~5점까지의 점수를 주고 총점과 평균을 구해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3.3.5 심층 면담 자료

영어토론 수업에 대한 사후 설문을 실시한 후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좀 더 다양한 반응과 의견을 조사하고자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총 4개의 구조화된 면담(structured interview)으로 영어 토론 수업 전의 생각, 영어토론 수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영어토론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 영어토론 수업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영어 사용능력의 변화로 구성되어 학습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아보았다(부록 3 참조).

또한 원어민 협동교사인 Gregory W. Kent와의 면담을 통해서 영어토론이 학습자들의 영어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캐나다인 Gregory W. Kent는 2008년부터 본 연구자와 함께 협동수업을 진행하였고, 본 학습자들과 2009년부터 2년간 수업을 함께 하였으며, 2010년 4월부터는 본 학습자들의 토론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의 시각에서 보는 학습자들의 영어사용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3.3.6 수업교재

영어토론 수업을 위해 교재는 Debate for juniors(김종남, 2009a & 2009b)를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는 토론의 용어가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안내되어 있으며, 토론의 논제도 초등학생의 수준에 알맞아 초등학생이 사용하기에 적당하게 되어 있었음을 고려하였다.

IV. 결과 분석 및 토의

본 장에서는 토론활동 전·후의 듣기평가와 쓰기 및 말하기의 결과를 분석하고, 정의적인 영역의 변화 및 학습자와 원어민 협동교사의 면담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4.1. 의사소통 능력평가 결과 분석

1주당 1회 20분 씩 30회에 걸친 영어토론 수업을 통하여 듣기와 쓰기 및 말하기 능력의 변화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 전·후 듣기 평가를 실시하여 듣기 능력의 변화를 SPSS 17 통계프로그램으로 t-test를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말하기위해 학습자들의 쓰기기록에 나타난 단어 수와 문장수를 비교 분석하여 학습자들이 얼마나 쓰기와 말하기에 변화를 가져 왔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유의미한 학습의 효과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4.1.1 토론활동 전·후 듣기평가 결과 분석

학생들의 영어 듣기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듣기 능력평가와 사후 능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듣기 평가는 모두 20문항으로 한 문항에 5점씩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점수를 기록하였다. 평가문제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만든 생활영어급수인증제 문제 8급 A형과 B형을 사용하였다. 듣기 평가의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를 t-test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영어 듣기평가의 전·후 변화

듣기평가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t	df	유의도(p)
사전 평가	91.83	30	10.86	-2.659	29	.013*
사후 평가	95.33	30	7.64			

p<.05

<표 10>에 의하면 학습자들의 평균 점수가 91.83에서 95.33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점수의 향상이 $p=.01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5$)를 보여주었다. 이는 듣기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토론 학습이 듣기능력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평균값은 높아지고 표준편차 값이 낮아 졌다는 것은 사전 테스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던 학생 군이 영어토론 활동 후 상당한 듣기 능력향상이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4.1.2 토론활동 전·후 쓰기 및 말하기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진행한 토론 학습에서는 찬반 두 팀이 나뉘어서 토론을 하고 그 승패를 가리는 활동을 하였으며,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뒤 말하기를 하였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다 듣고 나면 같은 팀의 학생들 끼리 서로 반박할 내용을 토의한 후 다시 쓰기 활동지에 반박할 내용을 기록한 뒤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자들의 쓰기 및 말하기 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쓰기 활동지에 나타난 문장의 수와 단어사용 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전·후 비교에서 전 조사는 토론 수업을 8회 수업을 마친 후 조사하였으며, 후 조사는 토론 수업을 28회 수업이 끝나고 실시하였다.

1) 쓰기 및 말하기 활동에서의 전·후 문장수의 변화

토론 활동 전·후 학생들이 자신의 토론 순서가 되었을 때 한 번에 말하는 문장의 수를 조사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문장수의 변화를 t-test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영어 쓰기 및 말하기 활동에서의 전·후 문장수 변화

문장수	전체 문장수	평균 문장수	사례수	표준 편차	t	df	유의도 (p)
전	92	3.06	30	.63	-4.942	29	.000*
후	116	3.86	30	.89			

p<.05

<표 11>에 의하면 8회 수업 후 학생 전체가 사용한 문장수는 92개이며 한 명이 사용한 문장수는 평균 3.06개였으나, 28회 수업 후 학생 전체가 사용한 문장수는 116개이며 한 명이 사용한 문장수는 평균 3.86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t-test 결과 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5)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영어 토론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쓰기 및 말하기에서의 사용 문장수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쓰기 및 말하기 활동에서의 전·후 사용 단어수의 변화

토론 활동 전·후 학생들이 자신의 토론 순서가 되었을 때 한 번에 말하는 단어의 수를 조사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단어수는 모든 문장 안에서 쓴 모든 단어의 수를 세어 조사하였으며,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도 그 수를 합산하여 조사하였다. 단어수의 변화를 t-test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12>와 같다.

<표 12> 영어 쓰기 및 말하기 활동에서의 전·후 단어수 변화

단어수	전체 단어수	평균 단어수	사례수	표준 편차	t	df	유의도(p)
전	621	20.70	30	7.72	-7.019	29	.000*
후	1038	34.86	30	11.57			

(참고: 같은 단어 복수 사용 허용)

p<.05

위의 표에 의하면 8회 수업 후 학생 전체가 사용한 문장속의 단어의 수는 621개이며 한 명이 사용한 단어수는 평균 20.70개였으나, 28회 수업 후 학생 전체가 사용한 단어수는 1038개이며 한 명이 사용한 단어수는 평균 34.86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t-test 결과 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영어 토론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쓰기 및 말하기에서의 사용 단어수가 늘었고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2 정의적 영역의 변화에 대한 분석

학습자들의 영어 토론 수업에 대한 단계별 토론 수업내용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려고 영어토론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후 비교에서 전 조사는 토론 수업을 4회 한 뒤 조사하였으며, 후 조사는 토론 수업을 29회 수업이 끝나고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앞의 연구 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문항 수는 총 13문항으로 학습자들의 영어 토론 수업에 대한 기본 생각은 6문항(1~6번), 토론 수업내용에 대한 생각은 7문항(7~13)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에 대한 척도는 리커트(Likert)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아니다'부터 시작하여 '매우 그렇다'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각각 1~5점까지의 점수를 주고 평균을 구해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설문지의 신뢰도 조사를 위해 SPSS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를 측정한 결과 사전 설문지의 신뢰도는 .908, 사후 설문지의 신뢰도는 .905로 신뢰도 분석 결과 일반적인 충족요건인 .60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4.2.1 영어토론 수업에 관한 정의적인 변화

학습자들의 영어 토론 수업에 대한 정의적인 변화를 알아보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듣기 효과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 변화

영어 토론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듣기 능력향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으며 토론 수업 후 그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영어토론 수업이 듣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물음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각의 변화는 다음 <표 13> 및 <그림 1>에 나타내었다.

<표 13> 듣기 향상 기대치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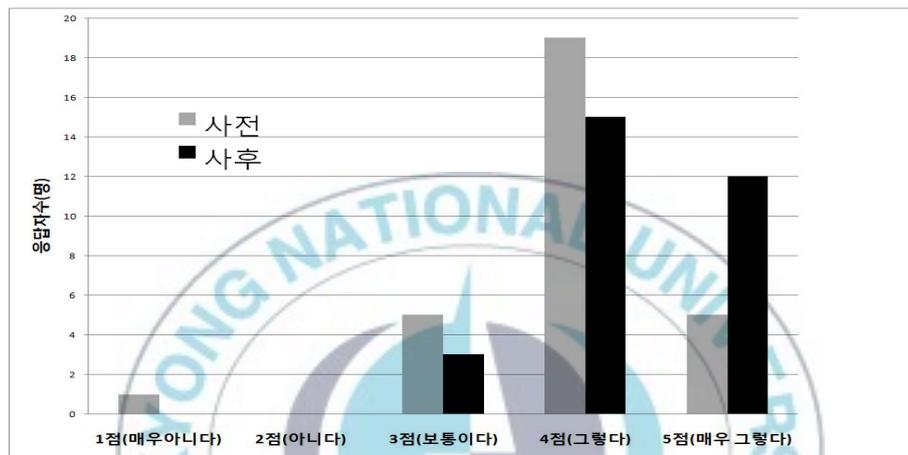
항목	검사	평균	사례수	표준 편차	t	df	유의도(p)
듣기의 효과	사전	3.90	30	.80	-2.56	29	.016*
	사후	4.30		.65			

p<.05

<표 13>을 보면 결과 4회 수업 후 영어 토론활동이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응답의 평균이 3.90이었으나, 29회 수업 후에는 4.30으로

향상이 되었다. 그리고 t-test 결과 $p = .01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5$)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영어 토론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영어토론이 듣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



<그림 1> 듣기 향상 기대치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그림 1>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후에는 사전보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변화 된 것으로 보아 영어토론이 듣기 능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 수가 늘어났다.

2) 말하기 효과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 변화

영어 토론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말하기 능력향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으며 토론 수업 후 그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영어토론 수업이 말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물음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각의 변화는 <표 14>와 <그림 2>와 같다.

<표 14> 말하기 향상 기대치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항목	검사	평균	사례수	표준 편차	t	df	유의도(p)
말하기 의 효과	사전	4.70	30	.59	-.29	29	.769
	사후	4.73		.52			

p<.05

<표 14>에 의하면 4회 수업 후 영어 토론활동이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응답의 평균이 4.70이었으나, 29회 수업 후 에는 4.73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t-test 결과 또한 p= .76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림 2> 말하기 향상 기대치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표 14> 및 <그림 2>에 나타내듯이 학생들이 처음부터 영어토론을

하면 말하기에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았고, 수업을 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영어토론이 말하기에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읽기 효과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 변화

영어 토론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읽기 능력향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으며 토론 수업 후 그 생각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영어토론 수업이 읽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물음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각의 변화는 <표 15> 및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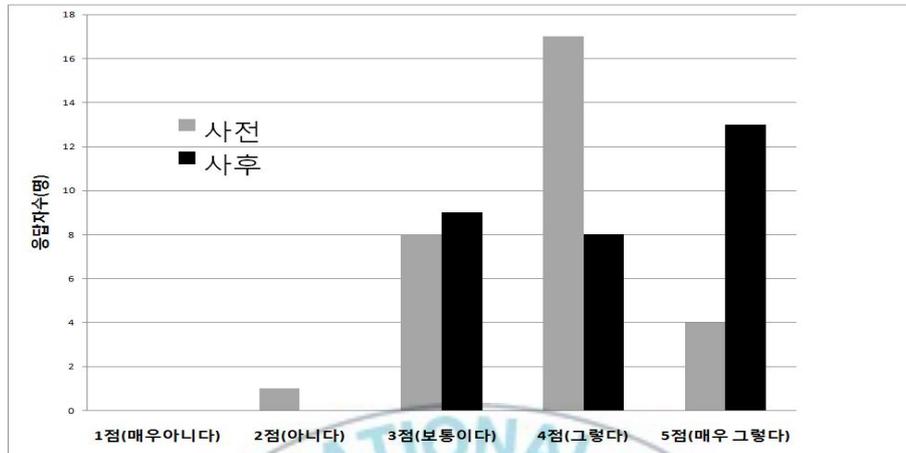
<표 15> 읽기 향상 기대치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항목	검사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t	df	유의도(p)
읽기의 효과	사전	3.80	30	.71	-2.06	29	.048*
	사후	4.13		.86			

p<.05

<표 15>에 의하면 4회 수업 후 영어 토론활동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응답의 평균이 3.80이었으나, 29회 수업 후에는 4.13으로 향상이 되었다. 그리고 t-test 결과 $p = .048$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5$)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영어 토론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영어토론이 읽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데 대한 기대가 높아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읽기 향상 기대치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그림 3>에서 보여주듯이 사전 조사에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라는 쪽으로 이동 된 것으로 나타내면서 영어토론이 읽기 능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 수가 늘어났다.

4) 쓰기 효과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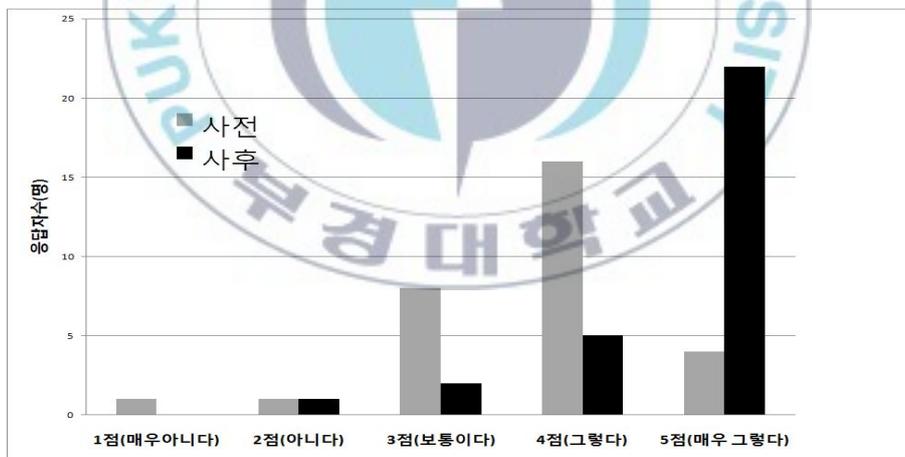
영어 토론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쓰기 능력향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으며 토론 수업 후 그 생각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영어토론 수업이 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물음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각의 변화는 <표 16> 및 <그림 4>와 같다.

<표 16> 쓰기 향상 기대치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항목	검사	평균	사례수	표준 편차	t	df	유의도(p)
쓰기의 효과	사전	3.80	30	.71	-4.94	29	.000*
	사후	4.60		.77			

p<.05

<표 16>에 의하면 4회 수업 후 영어 토론활동이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응답의 평균이 3.80이었으나, 29회 수업 후에는 4.60으로 향상이 되었다. 그리고 t-test 결과 p= .000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p<.05)를 보여주었다.



<그림 4> 쓰기 향상 기대치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그림 4>에 있어서는 사전에 ‘보통이다’와 ‘그렇다’라고 생각하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크게 변화 된 것으로 보아 영어 토론이 쓰기 능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 수가 상당히 늘

어난 것을 알 수 있다.

5) 영어 토론 활동에 대한 흥미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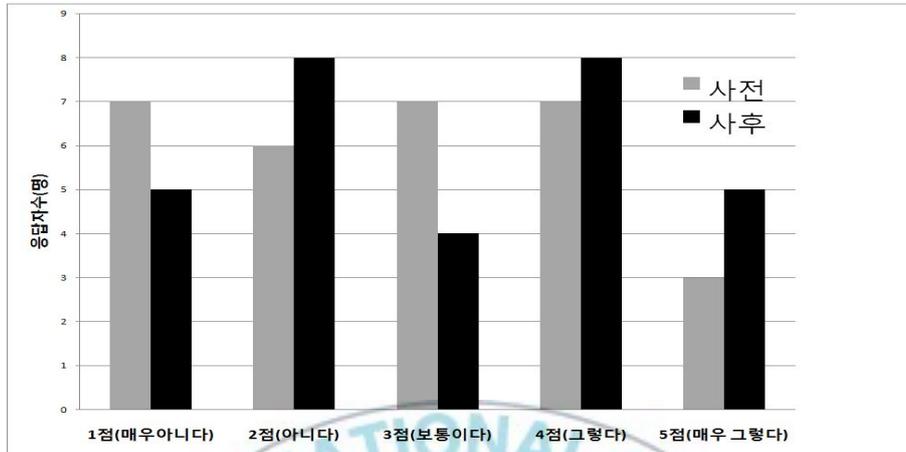
영어 토론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영어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영어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즐긴다’라는 물음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각의 변화는 <표 17> 및 <그림 5>와 같다.

<표 17> 흥미도 향상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항목	검사	평균	사례수	표준 편차	t	df	유의도(p)
흥미도	사전	2.76	30	1.33	-.86	29	.396
	사후	2.96		1.37			

p<.05

<표 17>에서 나타내듯이 영어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즐긴다고 한 응답의 평균이 2.76에서 2.96으로 미세한 차이 보이나, t-test 결과 $p = .396$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림 5>에 있어서는 사전 조사에서 ‘매우 아니다’라고 한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아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토론을 아주 즐기지 않던 아동의 수가 약간의 긍정적인 쪽으로 옮겨졌으며, ‘보통이다’와 ‘그렇다’ 쪽의 응답자 수가 ‘매우 그렇다’로 옮겨진 것으로 나타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흥미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여 주었다.



<그림 5> 흥미도 향상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6) 영어 토론 활동에 대한 의욕의 변화

영어 토론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영어토론을 잘 하고자 하는 의욕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영어 토론을 잘 하고 싶다’라는 물음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각의 변화는 <표 18> 및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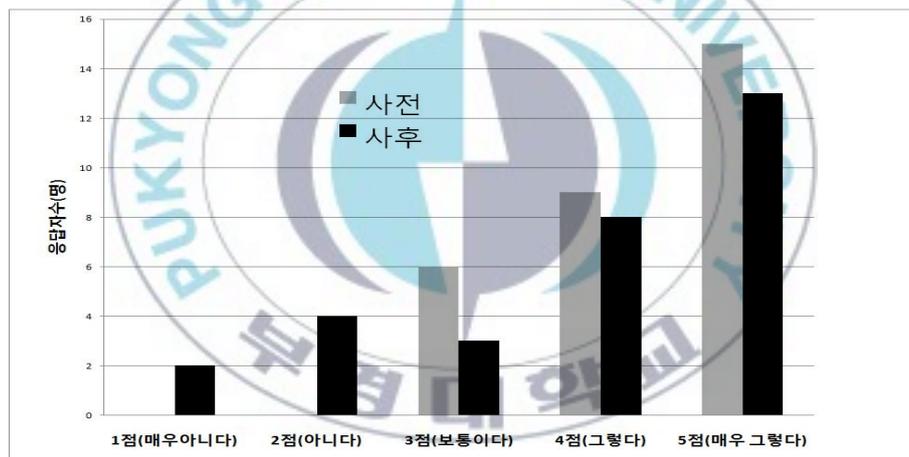
<표 18> 의욕변화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항목	검사	평균	사례수	표준 편차	t	df	유의도(p)
의욕	사전	4.30	30	.79	1.89	29	.068
	사후	3.86		1.30			

p<.05

<표 18>의 결과 ‘영어 토론을 잘 하고 싶다’고 한 응답의 평균이 4.30에서 오히려 3.86으로 낮아진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t-test 결과 p=

.0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그림 6>에서 나타내듯이, 사전 조사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가 줄어들었고, 사전 조사에서 보이지 않던 ‘매우 아니다’와 ‘아니다’라고 응답한 학생 수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토론의 과정이 초등학생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처음에는 잘 하고 싶다는 의욕이 많았지만, 영어 토론이라는 것이 아직도 초등학생의 단계에서는 잘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길만큼 재미있는 내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의욕변화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4.2.2 영어토론 수업의 내용에 관한 생각의 변화

학습자들이 영어 토론을 하면서 그 수업의 단계별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면서 학습하고 있는지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1) 토론용어 이해 대한 변화

영어 토론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토론 용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영어토론에 대한 용어는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물음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각의 변화는 <표 19> 및 <그림 7>과 같다.

<표 19> 용어 이해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항목	검사	평균	사례수	표준 편차	t	df	유의도(p)
토론용 어 이해	사전	2.86	30	1.07	-7.34	29	.000*
	사후	4.20		.76			

p<.05

<표 19>에서 보면 4회 수업 후 영어 토론 용어를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의 평균이 2.86이었으나, 29회 수업 후 에는 4.20으로 상당히 향상이 되었다. 그리고 t-test 결과 p= .000로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차이 (p<.05)를 보여주었다.

또한 <그림 7>에서도 보여 주듯이, 전에는 대체로 용어 이해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던 학생들이 사후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영어토론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보니 영어 토론 용어에 장시간 노출이 되고 또 그 결과 사용 용어들에 익숙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토론용어 이해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2) 듣기 참여도의 변화

영어 토론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영어 토론 시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물음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각의 변화는 <표 20> 및 <그림 8>과 같다.

<표 20> 듣기 참여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항목	검사	평균	사례수	표준 편차	t	df	유의도(p)
듣기 참여도	사전	3.93	30	.98	-2.71	29	.011*
	사후	4.43		.56			

p<.05

<표 20>에 의하면 4회 수업 후 응답의 평균은 3.93이었으나, 29회 수업 후에는 4.43으로 상당히 향상이 되었다. 그리고 t-test 결과 p= .011

로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차이($p<.05$)를 보여주었다.

<그림 8>에서도 나타내듯이 사전에도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학생의 수가 많았지만, 영어토론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보통이다’가 1명이고, 그 외의 학생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찬·반 토론의 특징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반박기회를 통한 상대방과 청중의 설득에 실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말을 듣는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뀐 것에 요인이 있다고 보인다.



<그림 8> 듣기 참여도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3) 의견 말하기의 변화

영어 토론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에 대한 변화 알아보았다. ‘영어 토론 시 의견을 말할 수 있다’라는 물음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각의 변화는 <표 21> 및 <그림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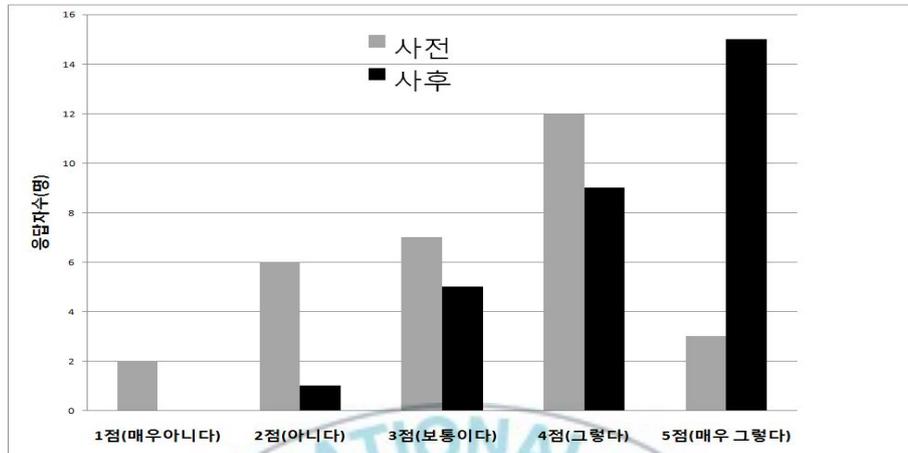
<표 21> 의견 말하기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항목	검사	평균	사례수	표준 편차	t	df	유의도(p)
의견 말하기	사전	3.23	30	1.13	-5.15	29	.000*
	사후	4.26		.86			

p<.05

<표 21>에 있어서는, 4회 수업 후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응답의 평균은 3.23이었으나, 29회 수업 후에는 4.26으로 상당히 향상이 되었다. 그리고 t-test 결과도 p= .000으로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차이(p<.05)를 보여주면서, 영어 토론 활동이 영어로 의견을 말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림 9>에 있어서는 사전조사에서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데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들이 사후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쪽으로 옮겨 갔음을 나타낸다. 또한 ‘보통이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로 응답해 의견 말하기 단계에는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의견 말하기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4) 이유 말하기의 변화

영어 토론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의견에 대한 이유 말하기가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영어토론 시 의견에 알맞은 이유를 말할 수 있다'라는 물음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각의 변화는 <표 22> 및 <그림 10>과 같다.

<표 22> 이유 말하기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항목	검사	평균	사례수	표준 편차	t	df	유의도(p)
이유 말하기	사전	2.76	30	1.10	-5.47	29	.000*
	사후	3.80		1.18			

p<.05

<표 22>에 있어서는 4회 수업 후 의견에 대한 이유를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응답의 평균은 2.76이었으나, 29회 수업 후에는 3.80으로 향상이 되었다. 그리고 t-test 결과도 $p = .000$ 으로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여주었고, 영어 토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이유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을 살펴보면, 사전조사에서 자신의 의견에 대한 이유를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물음에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들이 사후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쪽으로 옮겨 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매우 아니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사후에는 한 명도 없으며 또한 부정적인 응답하던 학생들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해 이유 말하기 단계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이유 말하기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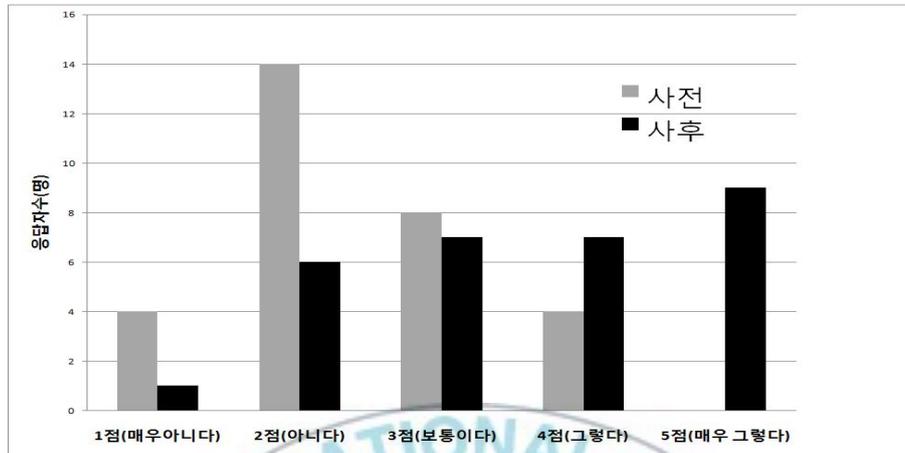
5) 증거 말하기의 변화

영어 토론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이유에 대한 증거를 말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영어토론 시 의견에 알맞은 이유나 증거를 말할 수 있다’라는 물음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각의 변화에 대해 <표 23> 및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표 23> 증거 말하기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항목	검사	평균	사례수	표준 편차	t	df	유의도(p)
증거 말하기	사전	2.43	30	.93	-6.15	29	.000*
	사후	3.56		1.22			
							p<.05

<표 23>에 있어서, 4회 수업 후 증거 말하기에 대한 평균값은 2.43이 었으나, 29회 수업 후에는 3.56으로 향상이 되었다. 그리고 t-test 결과, p= .000으로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차이(p<.05)를 보여주었고, 영어 토론 활동이후 영어 토론 시 의견에 알맞은 증거를 말할 수 있다고 응 답한 학생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림 11> 증거 말하기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그리고 <그림 11>를 살펴보면, 사전조사에서 증거 말하기에 대해서 학생 수의 반 이상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는데 반해, 사후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학생도 9명이나 보여주어 학생들이 증거를 말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이용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6)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기의 변화

영어 토론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영어토론 시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면 반박할 수 있다’라는 물음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각의 변화는 <표 24> 및 <그림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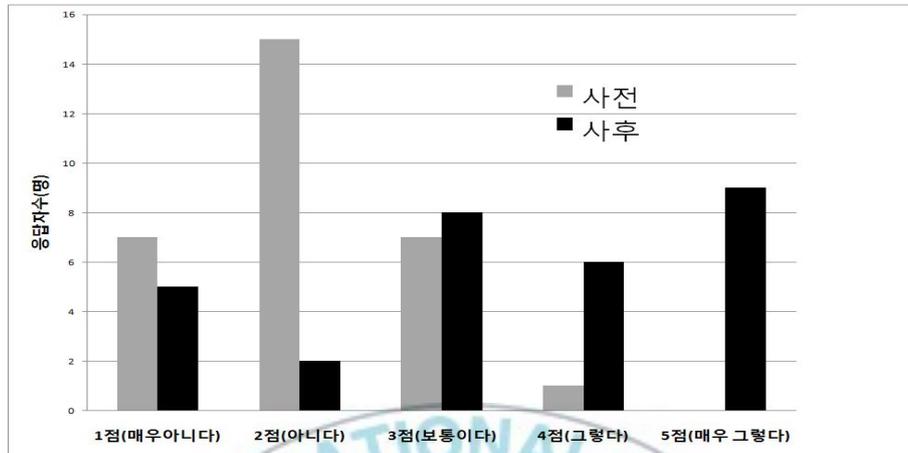
<표 24> 반박하기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항목	검사	평균	사례수	표준 편차	t	df	유의도(p)
반박하 기	사전	2.10	30	.84	-6.07	29	.000*
	사후	3.36		1.44			

p<.05

<표 24>에 있어서는 4회 수업 후 반박하기에 대한 평균값은 2.10이 었으나, 29회 수업 후에는 3.36으로 상당히 향상이 되었다. 그리고 t-test 결과도 p= .000으로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차이(p<.05)를 보여주었 다.

<그림 12>를 살펴보면, 사전조사에서는 1명의 학생만이 상대방의 의 견에 반박할 수 있다고 응답을 한 반면, 사후조사에서는 15명의 학생이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사전조사에 서는 의견도 영어로 하기 어렵다는 학생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었던 점 으로 미루어 보아 반박하기는 더욱 어렵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 운 용어를 사용하는 반박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단어 를 사용하는 반박스텝을 이용함에 따라 사후조사에서는 15명의 학생들 이 반박단계에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반박하기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7) 영어 사용량의 변화

영어 토론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수업 중 얼마나 영어를 사용하는지 알아보았다. ‘영어토론 시 주로 영어만 사용한다’라는 물음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각의 변화는 다음 <표 25> 및 <그림 13>과 같다.

‘매우 아니다’는 토론 용어와 발표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한국어를 쓴다는 학생이며, ‘아니다’는 토론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친구들과 영어를 조금 쓴다는 학생이고, ‘보통이다’나 ‘그렇다’는 토론 발표 뿐 아니라 토론 준비나 교차조사를 하는 중에도 영어로 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다. 그리고 ‘매우 그렇다’는 수업 중에는 모두 영어로 말하려 하며, 다른 친구들이 영어로 하도록 권장하고 영어 토론을 도와주는 학생들이다.

<표 25> 영어 사용량에 대한 평균값 및 유의도

항목	검사	평균	사례수	표준 편차	t	df	유의도(p)
영어 사용량	사전	2.73	30	1.36	-1.43	29	.161
	사후	3.00		1.28			

p<.05

<표 25>에 의하면 4회 수업 후 응답의 평균값은 2.73이었으며, 29회 수업 후에는 3.0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test 결과, p= .161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p<.05)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13> 영어 사용량에 대한 전·후 응답자수 비교

또한 위의 <그림 13>을 살펴보면, 사전조사에서 이미 영어사용에 능숙했던 4명의 학생들이 계속 능숙하게 수업 중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단기간의 영어토론 활동으로는 일상적인 대화까지 영어로 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전 조

사에서 ‘아니다’라고 응답했던 10명의 학생들이 사후에 ‘보통이다’라고 옮겨 응답을 하였고, 이는 토론 용어가 익숙해지면서 일상 대화는 한국어로 거의 하면서 토론 용어를 영어로 섞어서 사용하고 있었고, 평소 알고 있던 영어표현 중 쉬운 것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3 영어 토론 수업에 관한 학생 심층면담 분석

영어토론 학습 후 학습자들의 보다 다양한 반응 및 의견을 알아보고자 심화 면담 설문을 실시하였다. 심화면담의 질문은 총 4개로서, 영어토론을 하기 전 영어토론에 대한 생각, 영어토론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영어토론을 하면서 좋았던 점, 그리고 영어토론을 통한 영어의사소통 능력의 변화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4.3.1 토론에 대한 아동의 생각

영어 토론 수업을 하기 전에 영어 토론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변화를 묻기 위해 ‘영어로 토론 수업을 하기 전에는 영어로 하는 토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학습자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위그룹의 아동들의 답변의 예를 보면,

S1)다른 상대편을 설득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S5)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음.

S10)한국판 토론을 그냥 영어로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S11)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토픽을 주셔서 재미있었다.

S25) 미국에서 수업시간에 토론을 해 보았는데 비슷할 것 같아서 재미있을 것 같았다.

S26) 재미있게 보였다.

S28)....그래도 영어 토론을 한 번 해보고 싶었다.

다음은 중위권 그룹의 아동들의 답변의 예를 보면,

S2)새로운 수업에 대해 조금 낯설었다.

S6) 내 생각을 영어로 표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S7) 국어 시간에 하는 토론도 잘 못하는데 영어로 한다는 말에 걱정이 되었다.

S8) 단어를 잘 몰라서 친구의 말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았다.

S9) TV에서 영어로 토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려워 보였다. 그래서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S15) 걱정이 되었지만,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니 기대도 되었다.

그리고 하위권 그룹의 아동들의 답변의 예를 보면,

S3) 내가 어떻게 영어로 토론을 해야 할지 걱정했다.

S4)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S16) 발음을 잘하지 못해서 걱정스러웠다.

S17) 어렵고 지루하다.

S20)한국 사람이 왜 영어로 토론을 해야 하는가....

위의 답변에서 보여주듯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대체로 영어로 하는 토론 활동이 도전의 대상이 되고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으로 보는 반면, 중·하위로 내려올수록 상당한 마음의 부담을 안고, 수업을 하기 전부터 자신감과 흥미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었다.

4.3.2 토론 수업의 어려운 점에 대한 생각

영어 토론 수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어로 토론 수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학습자들의 몇 가지 답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위그룹의 아동들의 답변의 예를 보면,

S1) 친구들과 많은 의견과 이유를 낸다고 조금 힘들었다.

S10) 팀원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었고, 혁신적인 이유가 빈약한 것이 힘들었다.

S11)팀원이 하나로 협동하기 힘들었다.

S14)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S28)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좀 힘들었고....

S30)이어 주는 말을 사용해도 잘 연결이 잘 안 되어서....

다음은 중위권 그룹의 아동들의 답변의 예를 보면,

S2) 나의 의견을 영어로 할려고 하니 조금 힘들었다.

S7)발표할 때 긴장이 되어서 더듬거렸다.

S18) 단어 실력이 짧아, 생각이 나도 영어로 어떻게 말할지 몰랐다.

S23)상대방의 의견과 이유가 좋아서 반박 내용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S27) 아이디어 부족.... 의견 불일치...

그리고 하위권 그룹의 아동들의 답변의 예를 보면,

S3) 영어로 나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

S4) 전문 용어를 외우는 것.

S19) 내 아이디어를 영어로 좀 표현하기 어려웠다.

S20) 영어 단어를 잘 몰라 문장 적기가 어려웠다.

S21)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이 힘들었다.

위의 답변에서 나타내듯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대체로 팀원과의 협동이나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는 것, 팀 리드하기 등에서 어려움을 보인 반면, 중·하위로 내려올수록 아이디어 부족과 영어로 표현하는 능력의 부족,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의 부담 등을 어려워하고 있었다.

4.3.3 토론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

영어 토론 수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어로 토론 수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학습자들의 몇 가지 답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위그룹의 아동들의 답변의 예를 보면,

S5) 나 혼자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팀이 있으니 더 수월했다.

S10)토론을 하며 생각하는 과정이 좋았다.

S11)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 좋았다.....

S12)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단어보다 다른 여러 단어를 많이 알게 되어 좋았다.

S14)말하기 능력을 키웠다.

S22)노력을 좀 더 하면 토론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S28)자신감도 얻게 되었고 나의 말하기 실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이 되어 좋았다.

다음은 중위권 그룹의 아동들의 답변의 예를 보면,

S2)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한 것

S6) 내 생각을 영어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S7) 토론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좋았다.

S8) 어려운 단어를 알 수 있었다.

S15) 잘하지 않았던, 발표를 해봐서 좋았다.

S18)영어로 토론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었다.

S27)....작문도 많이 할 수 있었고, 긍정적인 결과도 많이 나왔다.

그리고 하위권 그룹의 아동들의 답변의 예를 보면,

S3) 나의 의견을 영어로 표현한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S4) 내 의견을 확실히 발표할 수 있었던 것

S16) 친구들과 영어로 말하면서 서로 가르쳐 주었던 것이 재미있었다.

S17)토론하는 방법을 알게되고....

S19) 영어로 실력이는 것

S24) 자신감이 생겼다.

위의 답변에서 상·중·하위권 학습자들의 공동적인 의견은 친구들과 함께 한 점을 들었으며, 또한 자신감이 생기고 전보다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토론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좋았고,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알 수 있었다는 것도 좋은 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4.3.4 토론 수업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

영어 토론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 자신들이 느끼는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영어 토론 수업을 통해 나의 영어사용 능력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학습자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위그룹의 아동들의 답변의 예를 보면,

S1) 설득하기 좋도록 쓰는 글썽씨와 듣기, 말하기 실력이 늘었다.

S10)안 썼던 단어를 쓰면서 회화 영어의 기초를 다진 것 같다.

S11) 쓰기 능력과 듣기 능력이 크게 향상이 되었다....

S12)영어로 말하는 능력이 참 많이 좋아진 것 같다. 또 듣기 실력과 발표력 자신감이 많이 늘었다.

S14)특히 스피킹과 라이팅이 늘었다.

S25) 한국에서 영어로 말할 일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영어 말하기 실력을 정리할 수 있었다.

S28)듣기를 소홀히 했는데 듣기 실력이 늘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음은 중위권 그룹의 아동들의 답변의 예를 보면,

S2)내 의견을 말하는 것에 조금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S6) 토론에 대한 여러 단어를 알게 되었다.

S7) 듣기 능력이 좀 늘은 것 같아서 좋았다.

S8) 친구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되었다.

S23)역양이나 흐름을 조금 더 쉽게 구사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 같다.

S27)말.듣.쓰.읽기를 골고루 학습함으로써 실력이 많이 향상 될 수 있었다.

그리고 하위권 그룹의 아동들의 답변의 예를 보면,

S3)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 잘 듣게 되었다.

S16)알고 있었지만 잘 쓰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영어를 더 많이 쓸 것이다.

S17) 내 의견을 영어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S19) 발표를 더 잘 하게 되었다.

S21) 영어 읽기 말하기 능력이 향상 되었다.

S29) 영어 단어도 많이 늘었고 자신감도 늘어났고 읽기도 늘어난 것 같다.

위의 답변에서 상·중 및 하위권 학습자들의 공동적인 의견은 듣기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며, 특히 듣기의 중요성을 더욱 잘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듣기 이외에도 말하기, 읽기, 쓰기의 영역에서도 많은 향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발표를 통한 영어로 말하기에 자신감 향상도 큰 변화로 보이고 있었다.

4.4 영어토론 수업에서 원어민 협동교사의 의견 분석

본 연구의 영어토론 학습은 원어민 협동수업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수업을 진행해 온 원어민 교사의 반응 및 의견을 알아보고자 면담을 실시하여 원어민 교사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원어민 교사의 영어 토론 수업에 관한 의견이다.

After having run debate classes for several consecutive semesters, I feel the majority of students did benefit from the experience. The students had had no previous exposure to English debating thus we began with the basic concept of debate. The students acquired the associated vocabulary and generally reproduced the appropriate language.

I believe that the students who had had an average to high English ability benefited the greatest from the debate classes as they could first; grasp the topics of debate fully and second; prepare an effective argument for their side. The students who struggled with the proposition still received some benefits from the class, as did all students, in improving their confidence with spoken English. All students were placed into groups at the beginning of each new debate topic. Each group worked together to develop a case either for or against the proposition. When finished, all groups were given an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debate to the class in a mock debate contest style. Thus, even those with poor English ability could practice their English public speaking with their peers in a environment of respect and engaged listening.

To ensure students who were not presenting were indeed

listening, a score sheet was developed which asked them to weigh the evidence given by both sides and judge as to which team won by these merits. Of course, the results still skewed in favour of the popularity of the team members debating, however it did still result in a more intent audience which was the primary goal.

English debating for EFL students seems to have been mostly successful in developing students' academic vocabulary, increasing their confidence in using English in prepared speeches and in considering the weight of their peers arguments and providing feedback to them all while listening, thinking and speaking in English. **Perhaps the greatest result of these debates was the encouragement of free, independent thought using the wealth of accumulated English resources learned by the students to convey and explain their positions on the various topics of debate; a challenge rarely presented at elementary school.**

위의 원어민 교사의 의견에서도 나타내듯이 영어 토론 학습은 EFL 학생들의 어휘 사용을 발달시키고 영어 사용에 자신감을 증가시켰으며, 교우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가장 큰 효과는 다양한 토론 주제 속에서 각자 조사한 풍부한 자료를 갖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들을 통해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각을 길러주는 것이며,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하나의 도전이라고 보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영어 토론 수업을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적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토론 수업 내용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5단계의 지도 과정을 마련하고, 각 단계별 지도 계획을 세워 영어토론 수업을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알맞은 토론 용어를 선정하여 4회에 걸쳐 용어지도를 하였으며, 토론의 방법 및 절차를 지도하였고 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훈련하였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좀 더 뒷받침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 말하는 훈련을 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이유를 더욱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 이유에 대한 증거를 찾아 제시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이 논리적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4단계에서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는 4단 논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그동안 훈련한 영어 토론 학습을 바탕으로 미니 토론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토론 전·후 듣기 시험을 실시하여 듣기능력의 변화 상태를 관찰 하였으며, 4회 수업 후 1차 설문조사를 하여 학습자들의 영어토론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고, 29회 수업 실시 이후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처음에 가졌던 영어토론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 영어토론 수업이 모두 끝난 후 학생들의 심층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설문조사에서 알 수 없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변화를 살펴보고, 30회 수업을 계속 함께 협동수업을 담당한 원어민 교사의 면담을 실시

하여 원어민 교사가 생각하는 영어 토론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토론 활동을 한 후, 학습자들이 듣기와 쓰기 및 말하기 능력이 향상 되었다. 또한 듣기 전·후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듣기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향상이 되었다. 학습자들의 쓰기 및 말하기 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쓰기 활동지에 나타난 문장의 수와 단어사용 수를 비교 분석 한 결과, 학습자들이 사용한 문장의 수가 늘었으며 전체 단어사용 수도 늘었고, 한 문장 속에서 사용한 단어의 수도 늘어 전체적으로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음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영어토론 활동을 한 후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정의적인 측면에 변화가 있었다. 특히 듣기와 쓰기 및 말하기 영역에서 학생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향상이 실제로 이루어져 영어토론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어 토론 수업을 통해 영어 토론 용어를 더 잘 이해하였으며, 의견 말하기, 이유 말하기, 증거 말하기, 반박하기의 모든 단계에서 학습자 스스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또한 영어 토론이 학습자들이 영어 말하기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처음 영어토론을 할 때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담감을 많이 갖고 시작한 학습자들이 영어 토론 후 말하기에 자신감을 가졌다는 반응을 심층면담에서 보여 주었다.

셋째, 협동 수업을 담당한 원어민 교사도 영어 토론 학습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원어민 교사의 의견에서도 보듯이 영어 토론 학습은 학생들의 어휘 사용을 발달시키고, 영어 사용에 자신감을 증가시키며 교우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가장 큰 효과는 다양한 토론 주

제 속에서 각자 조사한 풍부한 자료를 갖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들을 통해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각을 길러주는 것이며,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하나의 도전이라고 보여 진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영어 토론활동을 통하여 초등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 방안에 대해 것으로서, 영어 토론 활동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뿐 아니라 자신감의 향상과 교우관계의 향상 등 정의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주었다.

5.2 제언

지금까지 영어토론 활동을 통한 초등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신장방안에 대해 연구한 결과, 향후의 EFL 상황에 있는 한국 초등학교 영어교육 현장에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0회의 영어토론 수업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계별 훈련을 적용한다면 초등학생의 수준에서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영어토론이 가능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각 단계별 지도 과정에서 초등학생 수준에 알맞은 좀 더 구체적인 토론전략을 마련하여 영어토론 수업 모형이 제시 될 수 있다면 영어 교육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둘째, 본 연구의 진행은 학생들의 영어 능력 수준을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한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4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였을 때, 학생들 스스로가 어려운 부분은 잘 하는 학생이 맡았고,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은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맡아서 팀 운영을 하는 것을 보았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미리 정확히

구분해서 각 수준별로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나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초등학생 수준에 알맞은 토론 교재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일일이 학습지를 교사가 제작하거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가져다 쓸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향후 효율적인 영어 토론 수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영어 토론 교재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본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권경숙. (2006). *소집단 토론활동을 통한 고등학교 학생의 영어표현 기능 지도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청원.
- 김대영. (1998). *그룹토론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영어학습 지도방안*.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김상희. (2010). *찬반토론 훈련전략이 한국대학생의 영어말하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종남. (2009a). *Debate for juniors I*. 서울: 이에스피 에듀케이션.
- 김종남. (2009b). *Debate for juniors II*. 서울: 이에스피 에듀케이션.
- 배두분. (2002). *영어교육학 총론*. 서울: 한국문화사.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 *국어교육학 사전*. 서울: 대교출판.
- 유태열. (2002). *미시교육학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조효진. (2003). *영어말하기 수업에서의 토론 전략 훈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Brilhart, J. K., & Galanes, G. J. (1989). *Effective group discussion*. Dubuque, IA: William C. Brown Publishers.
- Brookfield, S. D., & Preskill, S. (1999). *Discussion as a way of teaching*. Suffolk, UK: St. Edmundsbury Press.

- Brown, H. D. (2000). *Principle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New York: Longman.
-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Dillon, J. T. (1994). *Using discussion in classrooms*. Berkshire, UK: Open University Press.
- Dörnyei, Z., & Thurrell, T. (1994). Teaching conversation skills intensively: course content and rationale. *ELT Journal*, 48(1), 40-49.
- Fukuda, S. (2003). Attitudes toward argumentation in college EFL classes in Japan. *Proceedings of the first Asia TEFL international conference* (pp. 417-418). Pusan, Korea.
- Meany, J., & Shuster, K. (2002). *Middle school public debate program: Refutation*. 월드 와이드 웹: <http://middleschooldebate.com/index.htm>에서 2010년 3월 8일에 검색했음.
- Krieger, D. (2005). *Teaching debate to ESL students: A six-class unit*. *The Internet TESL Journal*, 11(2). 월드 와이드 웹: <http://iteslj.org/Techniques/Krieger-Debate.html>에서 2010년 3월 10일에 검색했음.
- Nunn, C. E. (1996). Discussion in the college classroom: Triangulating observational and survey result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7(3), 243-266.
- Pica, T. (1987). Second-language acquisition, social interaction, and the classroom. *Applied Linguistics*, 8(1), 3-21.
- Richards, J. R., & Rickett, C. S. (1995). *Debating by doing:*

Developing effective debating skills. Urbana, IL: National Textbook Company.

Rybold, G. (2006). *Speaking, listening and understanding: Debate for non-native English speakers.* New York: International Debate Education Association.

Ur, P. (1981). *Discussions that work: Task-centered fluency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rge families are better than small families.

Unit 3

Resolution: Large families are better than small families.

Affirmative Speakers:

Negative Speakers:

<p>① 나</p> <p>Argument : Large families are better than small families.</p> <p>Reason : We can be more polite in large families.</p> <p>Evidence : My friend live with their grandparents and he is more polite than me.</p>	<p>② 남매</p> <p>Argument : Small families are better than large families.</p> <p>Reason : We don't need much money than large families.</p> <p>Evidence : My cousin need much money because they are live with their grandparents.</p>
<p>③ 친구</p> <p>Rebuttal : She says small families are better than large families. But I don't agree with it.</p> <p>Reason : Not all small families use less money than large families.</p> <p>Evidence : My friend is in small families but he needs much money than large families.</p>	<p>④ 내</p> <p>Rebuttal : He says large families are better than small families. But I don't agree with it.</p> <p>Reason : Not all people become more polite. Cause they live with their grandparents.</p> <p>Evidence : My cousin who lives with grandparents is usually rude to other family. So I think small families are better than large families.</p>

[부록 2] 의사소통 능력 변화에 대한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영어토론 수업이 영어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 사용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영어토론 학습의 연구 조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목적에 위한 통계처리만으로 사용됩니다.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 주신다면 연구를 위한 매우 가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4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학과 장현주

성 별(○표 하세요)	남 , 여
나의 8급 듣기 점수	

1. 토론 수업을 하고 난 후 여러분들이 토론 수업을 어떻게 생각하는
 나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하세요.

번호	영어로론 수업에 관한 기본 생각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영어로론 수업이 듣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	영어로론 수업이 말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	영어로론 수업이 읽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4	영어로론 수업이 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5	영어로론에 참여하는 것을 즐긴다.					
6	영어 토론을 잘 하고 싶다.					

2. 다음은 영어토론 수업의 내용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하세요.

번호	영어토론 수업에 관한 기본 생각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영어토론에 대한 용어는 잘 이해하고 있다.					
8	영어토론 시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다.					
9	영어토론 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10	영어토론 시 의견에 알맞은 이유를 말할 수 있다.					
11	영어토론 시 의견에 대한 이유나 증거를 말할 수 있다.					
12	영어토론 시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면 반박할 수 있다.					
13	영어토론 수업 시 주로 영어만 사용한다.					

--	--	--	--	--	--	--	--	--	--

[부록 3] 학생 심층 면담 자료

◆ 토론 학습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1. 영어로 토론 수업을 하기 전에는 영어로 하는 토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2. 토론 수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3. 토론 수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을 어떤 것이었습니까?

4. 토론 수업을 통해 나의 영어사용능력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